

2019년 12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종목 장세 속 강보합 마감

산업생산 자동차 생산 급증에 힘입어 전월 대비 1.1%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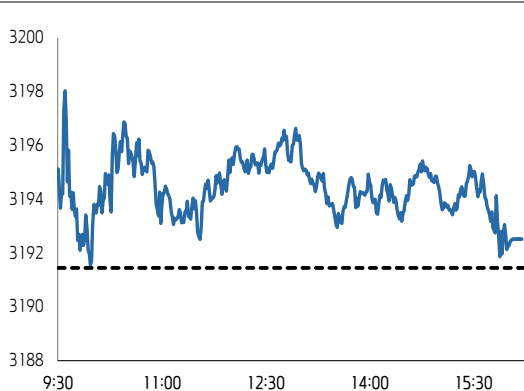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산업생산 개선, 브렉시트 관련 마찰

미 증시는 제조업 반등이 투자심리를 고양시키며 상승 출발. 그러나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나타난 마찰, 트럼프 탄핵절차 진행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반납. 이후 제한된 변화 속 개별 종목별 호/악재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장세가 펼쳐짐(다우 +0.11%, 나스닥 +0.10%, S&P500 +0.03%, 러셀 2000 +0.46%)

11 월 미국 산업생산이 전월(mom -0.9%)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1.1% 증가로 발표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 특히 소비재(mom -0.8%→ +2.1%), 제조업(mom -0.8%→ +1.7%) 등 모두 증가세로 전환. 전반적으로 GM 파업이 종료되며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2% 증가로 전환한 점과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첨단 기술 생산도 전월 대비 1.7%,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산도 2.6% 증가했으며, 더불어 공장가동률도 전월(76.6%) 보다 개선된 77.3%로 발표. 이를 바탕으로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4 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의 2.0%에서 2.3%로 상향 조정. 다만, 첨단 기술과 자동차 생산을 제외한 수치가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0.2% 증가로 전환하는 정도에 그쳐 여전히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려는 지속.

한편,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과 EU 간 마찰이 부각. 현재 존슨 영국 총리와 EU 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보면 내년 1 월 말 브렉시트 단행 후 2020 년 12 월 말 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후 브렉시트가 시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 월 1 일까지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무역협상이 끝나야 함. 이런 가운데 EU 는 유예기가 11 개월로 너무 짧다며 1~2 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정문항을 감안 연기 시도를 하고 있음. 그러나 존슨 총리는 유예는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과거 맺었던 EU 와의 협정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 이 내용에는 유예기간 연장이 없으며, 정부가 연장을 위한 협상을 금지하는 법률도 포함된다고 발표 이렇듯 EU 와 영국간 마찰이 이어지자 파운드화가 약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주요국가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1.27	2,195.68		홍콩	홍콩	+1.22	27,843.71	
KOSDAQ	+0.95	650.58		영국	영국	+0.08	7,525.28	
DOW	+0.11	28,267.16		독일	독일	-0.89	13,287.83	
NASDAQ	+0.10	8,823.36		프랑스	프랑스	-0.39	5,968.26	
S&P 500	+0.03	3,192.52		스페인	스페인	-0.67	9,615.90	
상하이종합	+1.27	3,022.42		그리스	그리스	+1.56	894.49	
일본	+0.47	24,066.12		이탈리아	이탈리아	+0.45	23,630.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개별 종목 상세

넷플릭스(+3.70%)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배드배스앤비온드(+11.24%)는 6명의 고위 임원을 해임하는 등 기업 혁신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의류업체인 게스(+8.27%)는 비용절감을 감안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겍(+1.58%), 노드스트롬(+1.13%) 등도 동반 상승했다. 존슨앤존슨(+1.25%)은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상승했다. 일라이릴리(+1.95%)는 성장기의 초기 단계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페덱스(-0.53%)는 시간 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유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하자 6% 넘게 하락중이다.

보잉(-0.03%)은 전일 알려진 대로 737맥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했으나, 전일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2.22%)는 최고 재무 책임자의 사임이 발표되자 하락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인 그루폰(-9.13%)은 북미지역 고객 감소 우려가 높다며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이 또다시 제기된 여파로 관련 종목인 카디날헬스(-3.97%), MCK(-2.97%), 아메리리소스(-3.27%) 등이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4%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0.77%	중형 가치주 ETF(IWS)	+0.11%
소매업체 ETF(XRT)	+1.21%	소형 가치주 ETF(IWN)	+0.72%
금융섹터 ETF(XLF)	+0.39%	대형 성장주 ETF(VUG)	-0.12%
기술섹터 ETF(XLK)	-0.23%	중형 성장주 ETF(IWP)	-0.2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5%	소형 성장주 ETF(IWO)	+0.19%
인터넷업체 ETF(FDN)	-0.07%	배당주 ETF(DVY)	+0.31%
리츠업체 ETF(XLRE)	-1.0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5%
주택건설업체 ETF(XHB)	-0.2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0.51%	미국 국채 ETF(IEF)	+0.01%
헬스케어 ETF(XLV)	-0.11%	하이일드 ETF(JNK)	+0.30%
곡물 ETF(DBA)	-0.71%	물가연동채 ETF(TIP)	+0.14%
반도체 ETF(SMH)	+0.57%	Long/short ETF(BTAL)	-0.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7.47	-0.04%	+2.28%	+2.97%
소재	380.02	+0.18%	+1.99%	+0.68%
산업재	685.49	-0.07%	+1.15%	-0.66%
경기소비재	972.84	+0.55%	+2.20%	+1.88%
필수소비재	643.01	-0.07%	+0.69%	+1.64%
헬스케어	1,175.27	-0.09%	+1.94%	+4.70%
금융	512.16	+0.49%	+2.22%	+3.69%
IT	1,577.80	-0.17%	+3.16%	+2.90%
커뮤니케이션	180.14	+0.01%	+1.02%	+1.13%
유틸리티	324.48	+0.24%	+2.22%	+1.91%
부동산	230.77	-1.16%	-2.42%	-3.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등락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546 계약 순매도 했으나 0.25pt 상승한 291.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2.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5 천억 넘게 순매수 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전일 마이크론과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도체 업황 개선에 기대 매수세 유입이 컸다. 그러나 오늘은 미 증시가 새로운 이슈가 제한된 가운데 종목 장세가 펼쳐졌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의 변화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미국 산업생산에서 하이테크 관련 생산이 증가하고,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NDF 달러/원 환율 하락을 감안 원화 강세가 이어질 여지가 높아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관련 영국과 EU 간 마찰은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순매수한 업종이 많지 않았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달 들어 KOSPI 가 5% 넘게 상승해 여타 국가에 비해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요인으로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과정을 보이며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산업생산 전월 대비 1.1% 증가

11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mom -0.9%)과 예상(mom +0.9%)를 상회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제조업생산도 전월 대비 1.1%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다. 한편, 공장가동률은 77.3%를 기록해 전월(76.6%)를 상회했다.

11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136.5 만건으로 전월(132.3 만건)과 예상(134 만건)을 상회했다. 허가건수도 전월(146.1 만건)과 예상(141 만건)을 상회한 148.2 만건을 기록했다.

10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03.2 만건)과 예상(701.5 만건)을 상회한 726.7 만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759.3 만건)을 하회하는 등 6 개월 연속 전년 대비 부진한 결과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WTI), 수요증가 기대 속 60 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산업생산이 양호한 결과를 발표하자 수요 증가 기대속 60 달러를 상회했다. 더불어 내년 1 월 1 일부터 OPEC+ 산유국들이 추가적으로 하루 50 만 배럴 감산을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 공급 감소 기대도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영국 총리와 EU 간 브렉시트 유예기간을 두고 마찰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5%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부각되자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특히 브렉시트 유예기간을 두고 영국과 EU 간 마찰이 불거진 점도 장중 국채금리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나 매파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는 “내년 통화정책 변화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매파성향의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는 중립수준 훨씬 아래 있어 추가 인하 필요는 없다” 라고 언급하자 국채금리는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후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강보험권에 그쳤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매출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5% 하락했으나, 철근은 0.1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0.94	+1.21	+2.87	Dollar Index	97.216	+0.20	-0.20
브렌트유	66.10	+1.16	+2.74	EUR/USD	1.1146	+0.02	+0.49
금	1,480.60	+0.01	+0.85	USD/JPY	109.52	-0.03	+0.74
은	17.072	-0.24	+2.22	GBP/USD	1.3134	-1.49	-0.17
알루미늄	1,764.00	-0.79	+0.51	USD/CHF	0.9804	-0.20	-0.41
전기동	6,200.00	+0.02	+1.64	AUD/USD	0.6855	-0.44	+0.68
아연	2,281.50	-0.41	+2.42	USD/CAD	1.3156	+0.01	-0.56
옥수수	390.00	+0.52	+3.45	USD/BRL	4.0716	+0.34	-1.79
밀	556.25	+1.18	+6.21	USD/CNH	6.9977	+0.09	-0.43
대두	940.75	+0.51	+2.76	USD/KRW	1166.20	-0.52	-2.11
커피	133.70	-3.78	+0.30	USD/KRW NDF1M	1162.60	-0.40	-2.2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82	+1.06	+4.03	스페인	0.390	-2.70	-6.80
한국	1.600	-0.20	-1.90	포르투갈	0.350	-2.60	-3.90
일본	-0.004	+0.70	+0.90	그리스	1.334	+0.40	-1.70
독일	-0.295	-1.80	0.00	이탈리아	1.271	-2.20	+3.00